



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편 집 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 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6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7월 31일(일)

“424년간 청송 심문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7월 9일 일본 사쓰마야키 종가 15대 심수관, 본향 김포 찾아 눈물
초대 심당길 할아버지 일본으로 끌려간 지 424년 만의 역사적 귀향
대평 대종회장 등 일가 130여명, 감동적인 ‘뿌리찾기’ 지켜보며 응원

임진왜란 중인 1598년 심당길 할아버지가 남원성에서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군(軍)에게 끌려갔다. 그는 고난과 핍박을 딛고 일본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도자기 브랜드 사쓰마야키(薩摩燒)의 개창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424년. 당길 할아버지의 부친이 11세조 도사공 심우인(沈友仁)이며, 묘소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7월 9일, 당길 할아버지의 후손인 15대 심수관이 대평 대종회장 등 일가 130여명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김포를 방문했다. 역사적인 귀향이었다. 고유제와 환영행사 후 그는

말했다. “일본의 심수관 가문은 424년간 청송 심문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먹였다.

15대 심수관의 김포 귀향행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상징성이 크다. 심수관 가문이 역경을 딛고 도자기 명가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 살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심수관 가문이 한일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다.

〈관련기사 2,3,4,5,6면〉

눈물이 웅변이다

누구도 눈물을 예상한 적이 없다.
그러나 눈물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포로로 끌려간 지 424년.
그 긴 시간 속에 녹아 있을
향수, 외로움, 고통, 애증, 오기, 자부심...
그 많은 것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랴.
그러니 눈물이 웅변이다.

“424년간 청송 심문에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그의 말은 눈물에 젖어 있었으며
비수처럼 날아와 우리의 가슴을 헤집는다.
그리고 묻는다.
우리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가.

외롭고, 또 외로웠지만
그래서 더 우뚝 솟은 일가가
수백 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의 가시밭길 역사를 안 것도,
그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를 만난 것도,
424년에 비하면 순간이다.

그리하여,
그의 눈물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것이다.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도 그 후손은,
그 후손의 후손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핏줄일 것이므로.

심규선 종보 편집장



NHK화면캡처

沈영감 심민섭



여러 종회와 일가들 헌성금

15대 심수관의 김포방문 행사를 지원하기 여러 종회와 개인이 따뜻한 헌성금을 보내왔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 공숙공 종중(회장 심충택) 100만원
- 이경공과 종중(회장 심상인) 50만원
- 수찬공 종회(회장 심형찬) 50만원
- 안효공 종회(회장 심무섭) 30만원
- 관관공 종회(회장 심대섭) 30만원
- 오산사복시정공종중(회장 심익섭) 30만원
- 참관공 종중(회장 심재철) 30만원
- 심정환(시흥) 30만원
- 심정웅(광명) 10만원
- 심강섭(김포종회장) 5만원

424년을 3시간으로 압축한 감동의 드라마

15대 심수관, 선영 참배-고유제-환영행사 내내 진지 일본 귀국 후 “일가들의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 전화

7월 9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열린 15대 심수관의 고유제 및 환영행사는 424년을 3시간으로 압축한 감동의 드라마였다. 15대 심수관은 지난 5월 심대평 대종회장과 심재

갑 곡산공 종회장을 만나 당길 할아버지가 11세조 도사공 심우인(沈友仁)의 차남이며, 도사공 묘소가 김포 약암리에 잘 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7월 9일 직접 참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고유제에서 절을 올리고 있는 15대 심수관

▶선영 참배(오전 10~11시 50분)

15대 심수관은 7월 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서머셋 팰리스 호텔을 출발해 오전 10시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곡산공 종중 묘소에 도착했다. 그는 이곳에서 제례복을 입고 1시간 동안 심재갑 곡산공 종중회장, 심창선 곡산공 종중 총무이사, 심충식 청심회장 등의 안내로 당길의 할아버지인 곡산공 수(鏞) 할아버지 묘에 헌화하고, 그 자제분들의 묘도 둘러봤다. 그는 학운재에서 당길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계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15대 심수관은 오전 11시 5분경 학운재를 떠나 오전 11시 20분경 대곶면 약암리에 도착해 집안 어른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과 일본 언론들이 열띤 취재를 시작했다. 15대 심수관은 심형찬 수찬공과 종회장의 안내로 당길의 증조부인 달원(達源) 할아버지의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어 그는 심주섭 도사공과 회장의 안내로 당길의 부모님인 도사공 우인 할아버지의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마스크는 15대 심수관이 묘소의 잡풀을 제거하고, 흙을 집어 단지에 담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고유제(낮 12시~12시 25분)

고유제는 12시경부터 시작됐다. 초헌관은 15대 심수관이, 아헌관은 심주섭 도사공과 종회장이, 종헌관은 심재갑 곡산공과 종중회장이 맡았다. 집례는 심춘

섭 곡산공과 재무이사, 집사는 심봉섭, 심인섭 일가, 대축은 심재성 도사공과 총무이사가 담당했다(고유제 문은 3편).

▶환영행사(낮 12시 25분~오후 1시 10분)

환영행사는 12시 25분 경 시작해 오후 1시 10분경에 끝났다. 심규순 명지대 교수의 헌무로 시작해 내빈 소개(김병수 김포시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등), 경과보고, 화동의 꽃다발 증정(6편), 심대평 대종회장의 축사(3편), 기념품 전달(6편), 15대 심수관의 감사 인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점심시간.

15대 심수관은 감사 인사에서 “아버지는 ‘외톨이가 되어도 결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뒤에는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고 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청송과 남원 외에 김포라는 고향이 또 하나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동안 많은 일본인이 격려와 용기를 줬다”면서도 “역시 당길 할아버지는 (김포로) 돌아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5대 심수관은 점심식사 때 “청송심씨는 모두 왜 그렇게 친절한가.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오후 2시 10분경 현장을 떠나 서울로 출발했으며, 이튿날인 10일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11일 “이번 행사에서 일가들의 환대에 크게 감동했다”며 “애써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말을 전해왔다.

15대 심수관 귀향 고유제문(告由祭文)

김포에서 찾은 뿌리에 의지해 더 큰 도예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고유제문은 한글과 일본어 병풍으로 만들어 전달했다.

유세차 임인 칠월 을묘삭 초구일 계해, 십오대손 수관 감소고우(維歲次 壬寅 七月 乙卯朔 初九日 癸亥, 十五代孫 壽官 敢昭告于)

임인년 7월 9일, 선대들이 일본에서 살아온 지 424년 만에 15대 수관(壽官)은 본향인 이곳 경기도 김포의 약산(藥山)을 찾아, 직계 조상인 도사공(都事公) 우인(友仁) 할아버지의 묘 앞에 엎드려 삼가 향을 피우고 맑은 술을 올리며, 선조님들 영전에 귀향을 아뢰옵나이다.

돌이켜 보건대 1592년 임진년과 1597년 정유년에 벌어진 일본의 조선 침략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사공 할아버지의 아들인 찬(讚) 할아버지, 아명 당길(當吉) 할아버지도 1598년 음력 8월, 전라도 남원성에서 왜장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군(軍)에게 붙잡혀 일본의 사쓰마 지방, 지금의 가고시마로 끌려가셨습니다.

당길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끌려간 지 무려 424년이 흐른 지금, 저 15대 수관은 당길 할아버지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을 도사공 부모님 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뿌리를 찾았다고는 해도 피눈물을 가슴에 묻고 일본 생활을 시작했을 당길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식 없는 아들 때문에 역시 피눈물을 흘렸을 도사공 부모님 묘소가 지금처럼 눈앞에 없었더라면 그 감격은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와 보니, 400년 넘게 조상의 묘를 정성껏 관리해오신 청송심씨 일가분들의 노고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일본에 온 저의 조상은 4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묵묵히 도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천리만리 떨어진, 낯설고 물신 이국땅에서 도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파도 앞에서 득을 쌓고, 폭설 속에서 길을 뚫으며, 비바람 속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상들은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켜, 심수관 가는 이제 '사쓰마야키(薩摩焼)'라고 하는, 일본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도자기를 만드는 도예명가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삼가 아뢰는 바입니다.

또 400년 전 일본으로 끌려온 조선인 가문 중에서 지금까지 한국 성을 쓰고 있는 집안은 오로지 심수관 가밖에 없다는 사실도 함께 아뢰는 바입니다.

선조님이시여!
저 15대 수관은 일본에 뿌리를 내린 심문의 후예로서, 저보다 훌륭했던 조상님들도 결코 누리지 못했던 감격의 순간을 혼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녕 선조들이 뜻한 바 있어 제게 주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섭으로써 일본의 심수관가가 4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한반도로 뿌리가 이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뿌리에 대한 외로움을 떨쳐 버리고, 어디에 있든 심문의 후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크나큰 격려가 아니겠는지요.

선조님이시여!
저 15대 심수관은 저의 뿌리가 이곳 경기도 김포 약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왔고, 이후로도 일본에서 살아갈 심수관 가를 대신해, 앞으로 심문의 영예를 드높이고 조상에 감사하는 겸허한 예술가, 한국과 일본의 친선에 가교가 되는 예술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예술가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16대, 17대 등 제 후계자들도 그런 예술가가 되도록 엄하면서도 자상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선조님이시여!
먼 시간을 돌고 돌아, 먼 길을 돌고 돌아, 이곳 김포 약산의 조상님들 앞에 처음으로 선 15대 심수관의 귀향을 반겨주시고 심수관 가의 앞길도 열어살피소서. 제 후손들도 대대손손 청송심씨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우하소서. 청송심문과의 유애와 유대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도와주소서. 15대 수관이 맑은 술과 포, 그리고 과일들 공손히 차려 올리오니 부디 흥향하소서.

임인년(2022년) 7월 9일,
15대 수관과 청송심씨 도사공파(都事公派), 곡산공파(谷山公派), 수찬공파(修撰公派) 종원(宗員) 일동은 삼가 위와 같이 아뢰옵나이다.

심대평 대종회장 축사

이제 30만 청송심문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대평 대종회장

축사를 하기 전에 어제(7월 8일) 일본에서 있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와 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아베 전 총리를 잃은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흔히들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실적과 결과만을 중시하는 21세기에 핏줄에 기반한 혈연공동체는 그 생명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목격하신 이 장면은, 그런 주장이 틀렸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400년의 시간과, 한국과 일본이라는 공간을 훌쩍 뛰어넘는 이 감동은 우리 사회에서 핏줄이 여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상시에 대종회가 나아갈 길은 다른 집안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문이 지닌 장점을 살려 이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따뜻하며,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즉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각자의 긍정적 요소를 더하는 시너지효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적 사례가 바로 심수관 가문이 아닐까 합니다. 고유제문에서 밝혔듯, 심수관 가문은 전쟁포로라는 신분으로 일본 생활을 시작했으나,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청송심씨라는 성도 버리지 않으면서, 400년 이상 오로지 도자기 외길을 걸어, 이제는 세계적 명가의 반열에 우뚝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고, 남을 헐뜯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다.

15대 심수관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심수관 가문이 겪었을 고난에 깊이 공감하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룩한 빛나는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30만 청송심문이 심수관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청송심씨 도사공파, 곡산공파, 수찬공파 임원들과 가깝고 먼 데서 이 자리에 왕림해주신 일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승조의 정신으로 옛 선조들의 묘소를 정성껏 관리해온 파종회와, 돈목의 마음으로 집안일을 내 일처럼 돕는 일가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과 김주영, 박상혁 두 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들께도 청송심문을 대표해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벤트는 끝나도 감동은 남습니다. 우리 청송심문은 오늘 이 감동을 자양분 삼아 핏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동시에, 삼한갑족의 영예를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돌려드려야 할지를 더욱 고민하는 성숙한 가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대 심수관 김포 귀향 행사 : 화보

도사공·곡산공·수찬공 종회 철저한 준비, 깔끔한 진행

일가들 함께 큰 절 올리고, '고유제문 병풍' 등 정성껏 마련한 선물들도 전달

15대 심수관의 김포 방문 행사는 준비 과정에서 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행사가 되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런데도 대과 없이 행사를 끝낼 수 있던 것은 현지의 도사공·곡산공·수찬공과 종회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깔끔하게 진행한 덕분이다.

특히 접수 및 안내, 주차 관리, 오찬 지원 등 그늘에서 애써 주신 분들이 많다. 또 일가들도 130여 명이나 참석해 행사에 힘을 보탤으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일가도 많다. 이 지면을 빌려 모든 일가에게 감사드립니다.



곡산공 묘소를 참배하는 15대 심수관



수찬공 묘소를 참배하는 15대 심수관



도사공 묘의 잡초를 제거하는 15대 심수관



고유제 집전을 주재한 일가들. 왼쪽부터 심재성(대축), 봉섭(집사) 재갑(종헌관), 15대 심수관, 주섭(아헌관), 인섭(집사), 춘섭(집례)



고유제 때 함께 절을 하는 일가들



심규순 교수의 헌무



취재에 열심인 한일 언론인들



15대 심수관에게 <萬枝一根> 서각 전달



모든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

15대 심수관 김포 귀향 행사 : 기사모음

한일 기자 30여 명 몰려... “다시 없을 색다른 취재경험”

아베 전 총리 사망에도 일본 언론 약속 지켜...한일 유력매체 29곳 보도

15대 심수관의 김포 방문을 앞두고 대중회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한국과 일본 언론에 배부했다.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한편으로는 김포까지 올 것인지 걱정했다.

더욱이 행사 전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일본 매스컴이 울지를 우려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가 취재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7월 21일 현재, 경기일보(2회), 경인일보, 경향신문, 김포신문(2회),

동아일보, 매일경제, 새전북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2회), 전라일보, 전북일보, 조선일보(2회), KBS, 채널A, MBN,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OBS, The Korea Times가, 일본의 NHK, 교도(共同)와 지지(時事)통신, 아사히(朝日), 요미우리(讀賣), 마이니치(毎日), 산케이(産経), 주니치(中日), 미나미니혼(南日本)신문 등 한국과 일본의 29개 유력매체가 15대 심수관의 김포 귀향 행사를 보도했다.

The collage consists of several overlapping newspaper and news website pages. Key elements include:

- Top Left:** A page from '세계일보' (Segye Ilbo) with the headline '정유재란 때 日로 끌려간 도예가의 후손... 424년 만에 선조 묘소 찾았다' (Descendants of a potter taken to Japan during the Jeongyu War... Found their ancestors' graves after 424 years).
- Top Right:** A page from 'The Korea Times' with the headline '15대 심수관, 선조들 묘소 참배...' (15th Shim Su-gwan, visiting ancestors' graves...).
- Middle Left:** A page from '조선일보' (Chosun Ilbo) with the headline '日 조선도공의 후손, 424년만에 조상묘 참배' (Descendants of Joseon Do-gong in Japan, visiting ancestral graves after 424 years).
- Middle Right:** A page from '서울신문' (Seoul Shinmun) with the headline '[서울포토] 일본 도자기 명장, 424년 만에 김포 선조 묘소 참배' ([Seoul Photo] Japanese pottery master, visiting Gimpo ancestral graves after 424 years).
- Bottom Left:** A page from 'NHK' with the headline '薩摩焼の宗家 韓国・金浦にルーツ' (Samo-yaki clan traces roots to Korea's Gimpo).
- Bottom Right:** A page from '朝日新聞' (Asahi Shimbun) with the headline '父さん母さん、あの時どんな思いで 薩摩焼の沈氏、400年越し墓参' (Dad, Mom, how did you feel at that time? The Shim family of Samoyaki, 400-year-old grave visit).
- Center:** A large photo showing a group of people, including Shim Su-gwan, gathered around a tombstone in a cemetery.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歸郷告由祭' (Homecoming Memorial Service).
- Other elements:** Various smaller news snippets and social media posts are interspersed throughout the collage, all related to the same event.

“훌륭한 분께 꽃 전달하니 부듯...친구들에게도 자랑”

15대 심수관 환영 행사에서 화동(花童)으로 눈길 끈 심민정·민서 자매



15대 심수관과 포즈를 취한 심민정(왼쪽), 민서 자매

어린아이는 언제, 어디서 만나도 귀엽다. 7월 9일 15대 심수관 환영행사에서도 화동으로 나선 어린 자매가 눈길을 끌었다. 심민정(10·김포금빛초등학교 3년)과 민서(4) 자매다. 자매는 이날 15대 심수관에게 꽃을 전달함으로써 심문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할 것이라는 상징을 연출했다.

화동 아이디어는 이번 행사를 준비한 심재성 도사공종회 총무가 내놨다. 민정 자매는 재성 씨의 형인 재화 일가의 손녀다. 집도 약산에서 차로 25분 거리인 김포 시내에 있다.

어머니 박새라 씨(32)는 화동 얘기를 꺼내지 않고 먼저 15대 심수관을 다룬 유튜브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민정에게 어떡냐고 묻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했었다. 그때 “이 분이 우리 시골 묘소에 오시는데 네가 꽃을 드리면 어떡냐”고 하자 “좋다, 하겠다”고 했다는 것.

민정은 “처음에는 긴장했으나 훌륭한 분에게 직접 꽃을 드리고 나니 아주 부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했다. 행사가 끝난 뒤 친구나 학원 선생님에게도 자랑했는데, “처음에는 내 얘기를 믿지 않더니 뉴스 영상을 보여주니 믿어주더라”며 웃었다. 민정의 꿈은 작곡가. 요즘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

어머니 새라 씨는 “시골집 옆에 있는 묘가 어떤 묘일까 늘 궁금했는데 그런 역사가 숨어있을 줄 몰랐다”며 “아이들이 역사적인 행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화(언론인 안내), 재성, 재정 씨(접수 및 안내) 3형제와 부인들, 자매의 아버지인 성환 씨(주차 관리)까지 참여했으니, 일가 10명이 총출동한 셈이다.

일본 NHK 이튿날 전국 보도



‘사쓰마야키의 도예가 심수관씨, 한국에서 선조묘 참배’라는 제목으로 “(당길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쓰여있다.

묘소 흙, 일본으로 못 가져간 이유



15대 심수관은 도사공 할아버지 묘의 흙을 일본으로 가져가 당길 할아버지 묘에 뿌리겠다고 했으나 일본 농림수산성이 “반입 불가”라고 알려와 일본으로 보내지 않았다.(OBS화면 캡처)

15대 심수관 행사에 도움 주신 분들

- ▶ 주관
 - 도사공과 종회(회장 심주섭)
 - 곡산공과 종중(회장 심재갑)
- ▶ 후원
 - 장사랑공과 종회(회장 심주섭)
 - 무속공과 종중(회장 심상은)
- ▶ 실무 스태프
 - 심춘섭 곡산공과 재무이사
 - 심재성 도서공과 총무이사
 - 심창선 곡산공과 총무이사
- ▶ 선영 안내
 - 9세조 수찬공: 심형찬 수찬공종회장
 - 10세조 곡산공: 심재갑 곡산공과 종중회장
 - 11세조 도사공: 심주섭 도사공과종회장
- ▶ 고유제
 - 초헌관 15대 심수관
 - 아헌관 심주섭 도사공과 종회장
- 종헌관 심재갑 곡산공과 종중회장
- 집례 심춘섭 곡산공과 재무이사
- 집사 심복섭, 심인섭
- 대축 심재성 도사공과 총무이사
- ▶ 통역
 - 심규선 종보 편집장
- ▶ 현무
 - 심규순 명지대 무용학과 교수
- ▶ 기념품 전달
 - 도사공과 종회(미니 병풍)
 - 심재성(萬枝一根) 서각
 - 심재섭(선영 방문 기념패)
 - 심재석(족자와 서적)
 - 심인구(찾잔)
 - 심재금(미니 가계도와 김포 소면)
- ▶ 교통수단 제공
 - 심정환, 심현용

- ▶ 접수 및 안내
 - 심운섭, 심재복, 심재정
- ▶ 고유제 지원
 - 심규섭
- ▶ 주차 지원
 - 심재목, 심형보, 심성환
- ▶ 언론인 지원
 - 심재화
- ▶ 화동(花童)
 - 심민정, 심민서
- ▶ 점심 지원
 - 심수남
 - 이귀순(심상은 회장 부인)
 - 배선숙(심재화 씨 부인)
 - 허미숙(심재성 씨 부인)
- ▶ 음향장비
 - 조성민
- ▶ 비디오 촬영
 - 이유성, 전재원
- ▶ 스틸사진 촬영
 - 심성영, 심웅근
- ▶ 축하 화환(일가 및 김포)
 - 대종회장 심대평
 - 안효공과종회 회장 심무섭
 - 공숙공 종중회장 심충택
 - 시정공과 종중회장 심익섭
 - 청심회 회장 심충식
 - 청수회 회장 심학섭
 - 우리종회 회장 심재섭
 - 역사학자 심재석
 - 김포한강신협 이사장 최해용
 - 김포의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수
- ▶ 축하 화환(외부)
 - 주일본국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윤덕민
 - 주대한민국 일본국특명전권대사 相星孝一
 - 한일포럼 회장 유명환
 -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정구중
 - 전 주일 한국대사·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유흥수
 - 한일경제협회 회장 김윤
 - 한일문화교류기금 회장 이상우

<2019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열기를 다시 한번! 10월 2, 3일 청송에서 제2회 한마음대회 개최기로

7월 21일 회장단회의 추인...코로나 상황 보가며 8월 중순 최종결정

7월 5일 지역 및 과종회, 청장년회 시도 대표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10월 2, 3일 관향 청송에서 제2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결정은 7월 21일 대종회 회장단회의에서도 추인했다.

다만, 7월 들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최대의 변수. 대종회는 일단 10월 2, 3일에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되, 코로나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10월 3일 청송에서 제2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열기로 의결한 모임을 끝내고(7월 5일). 앞줄 왼쪽부터 심상억 대종회 문화이사, 심언보 울산내금위공종회 총무이사, 심재훈 청주종회 사무국장, 심양섭 청심회 사무총장, 심대평 대종회 회장, 심수지 청심회 재무, 심민섭 광주금당산종회 총무이사, 심규익 대전종회 이사, 뒷줄 왼쪽부터 심창선 곡산공종회 총무이사, 심재수 여수종회 회장, 심삼배 대구종회 회장, 심언태 총무이사, 심광열 전 대구청장년회 회장, 심성기 춘천종회 총무, 심진식 현령공과경남종회 총무, 심승무 청수회 부산위원장, 심상복 청송시조묘소 유사, 심창래 전 YTN 국장, 심재현 용인종회 사무총장, 심재열 전북종회 총무이사,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심윤보 청수회 사무국장, 심문보 한서대 교수, 심태섭 부산종회 총무이사, 심충현 광주부윤공과선산종회 총무이사, 심규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총무이사, 심재철 청수회 서울위원장, 심흥보 청수회 경남위원장, 심규정 재무이사(29명).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결산정보>

발행인: 회장 심대평
편집인: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한경회관 5층
전화: (02) 2267-7857
(02) 2267-9339
FAX: (02) 2269-7755
연재: SNS연재
02-2277-0245

격월간 제139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9년 10월 31일(목)

10월 4,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대성공

**보아라! 관향 청송에 운집한 5000명의 심문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라는 외침을
나가자! 심문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10월 4, 5일 관향 청송에서 열린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는 예상을 훌쩍 넘긴 5000여명의 일가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용전현 한바탕 앞에 모인 일가들이 보광산 시조묘전의 추향제를 중계하는 스크린을 보며 헌정을 올리고 있다.

<한마음대회>에 보내주시 관심, 협조,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종회 집행부 일동

2019년 10월 4~5일 청송에서 개최한 <제1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국내외 청송심씨 5000여 명이 참석해 시조 문림랑공(휘 흥부)의 묘소에서 추향제를 올리는 등 800년 심문 역사에서 가장 큰 행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효 학술포럼, 청소년 멘토링, 재능전시회, 성년례, 자랑스러운 심문상 수여, 소헌왕후 재현, 청심장학생 첫 장학금지급, 장기자랑 및 심문 연예인 공연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할아버지-아들-손자의 3대가 참가한 가정에는 일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특별이벤트도 시행했습니다.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2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1회 때보다 더욱 다채롭고 알차게 꾸밀 계획입니다. 2일은 세계잼버리 대회를 벤치마킹한 청소년 중심 이벤트와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연예인 나눔행사와 전야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일은 평생 추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꾸밀 예정이며, 풍성한 선물도 마련합니다.

청송심씨 후손은 물론이고, 외손, 사위, 며느리 등 청송심씨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대회' 를 지향합니다. 일가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및 아이디어 제공 02-2267-7857.

청송심씨대종회

2019년 10월에 개최한 제1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보도한 종보 139호 1면. 5000여 명의 일가가 참석했던 당시의 열기가 그대로 전해 온다.

6월 지방선거 심문 당선인 워크숍 및 축하회

“민심 받드는 자랑스러운 심문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

6월 1일, 대전에서 군수, 구청장, 광역 및 기초의원 당선자들 참석

대중회는 6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KW컨벤션센터에서 ‘자치, 분권, 리더십: 지방정치시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심문을 위한 워크숍 및 축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심민 전북 임실군수 당선자(이하 당선자 생략),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심재철 후보 편집위원의 부인), 심철의·심창욱 광주광역시 시의원, 고영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심성식 일가의 아내), 심완례 충남 예산군의원, 심영석 경남 창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래 참석 대상자는 30여 명이 넘었으나 그날 마침 6·25기념행사 때문에 불참한 당선인들이 많았다.

심대평 대중회장은 축사에서 “나는 충남지사 민선 3번, 국회의원 재선 등 총 6번의 선거를 치르며 선거의 당락은 민심이 결정하고,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송심씨의 어르신 두 명이 말한 교훈을 소개했다.

하나는 4세조 청성백 덕부(德符)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기뻐하지 말고, 백성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라”는 충고였다. 즉 공복은 본인의 나이 아니라 백성의 낙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다그침이었다.

다음은 대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심성택 감사장의 말로 “국민을 잘 모시는 공직자가 문중 일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대평 회장은 “당선인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민심을 받드는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동시에 문중 일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소진광 전 새마을중앙회 회장(전 가천대 대외부총장)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대표의 리더십’이라는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의 최근 추세와 주민들의 요구 변화, 지방정치인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조언했다.

축하와 격려를 받은 당선인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각오, 대중회와 일가들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세종·충남총회 심현근 회장과 심규선 총무, 심재성 배재대 명예교수 등 현지 일가들이 참석해 도움을 줬으며, 심상조 재산관리위원회 위원장, 심상돈 스타키보청기그룹 회장, 심익섭 달력제작위원장, 심재철 후보 편집위원, 심규선 후보 편집장,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등도 내빈으로 참석했다.



인사말을 하는 심대평 대중회장



소진광 교수의 특강



앞줄 왼쪽부터 심상돈 스타키보청기그룹 회장, 심상조 대중회 재산관리위원장, 심현근 대전·세종·충남총회 회장, 심영석 창원시의원, 심덕섭 고창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대평 대중회 회장, 고영민 광주 북구의원, 심완례 예산군의원,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심재철 후보 편집위원(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남편), 심재철 청수회 서울시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심창래 전 YTN 국장, 심재성 배재대 명예교수, 심규종 스님,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심익섭 대중회 달력디자인위원장, 심상익 대중회 대외협력실장, 심연태 대중회 총무이사, 심성식 청수회 광주·전남위원장, 심성식 이사(고영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의 남편), 심규선 대전·세종·충남총회 총무, 심규선 후보 편집장, 심수지 대중회 달력디자인 위원,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관섭 청수회 전북위원장.



심 민 전북 임실군수
내 이름 ‘심민’을 거꾸로 쓰면 ‘민심’이 된다. 임기 4년 동안 민심의(of the people), 민심에 의한(by the people), 민심을 위한(for the people) 군정을 이끌겠다.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현직 군수와와 선거전은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다. 5번이나 방문해 대가 없이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신 우리 문중을 위해서라도 전국 최고의 고창군을 만들겠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심재철 전 고려대 미디어대 학원장의 아내)
청송심씨 집안에 시집오길 정말 잘 했다고 인정한다. 용산구민을 청송심씨처럼 떠받들며 용산구를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전반기 제1부위원장)
지난 4년간 야인으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중회가 초대할 뜻에 부응하겠다.



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부끄럽지만 이번 초청을 통해 청송심씨대중회를 알게 되었다. 문중에 누가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영민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심성식 일가의 아내)
청송심씨대중회 초대를 받고 놀랐다. 다른 어떤 문중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문중 어르신과 다른 당선인을 만나 뵙고 ‘역시 참석하길 잘 했다’고 생각했다.



심완례 충남 예산군의원
여자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고, 충남지방은 문중행사도 흔치 않다. 이번 모임은 정말 좋은 기회였다. 비록 여성이지만 앞으로 문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심영석 경남 창원시의원
창원시는 청송심씨가 많지 않으나 한때 1년 동안은 군(軍), 경찰서, 행정기관 등 세 관공서 수장이 모두 청송심씨였다. 일가 단합을 위해 대중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일가 당선인 동정

심재연
경북 영주시의회 의장 취임

심정보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 취임

신항순 경북 예천군의원 (가, 남편 심우보)
※중보 155호에 누락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 참석

6월 18일 서울 평창동, “대단한 희생이자 사랑이었다” 첫 공개 연설



고 심정민 소령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8일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공개 연설을 했다. 김 여사의 공개 연설은 이것이 처음이다. 심 소령 추모음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광장에서 열렸다.

심 소령은 지난 1월 경기 화성 전투기 추락사고 때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했다.

이번 행사는 심 소령을 추모하는 허행일 시인의

시집 ‘그대 햇불처럼’ 발간을 기념해 열린 것이다.

김 여사는 이날 연설에서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그 당시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다”며 “너무 찬란한 젊음이 있고,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존경하는 부모가 계시고, 가족이 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젊은 친구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 깊이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정민 소령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켰다”며 “그런 젊은 인생을 우리를 대신해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영원히 남

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끝으로 “오늘 와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라며 “우리뿐 아니라 매년 이렇게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故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 가운데는 류희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허행일 시인 페이스북 갈무리)

심상돈 스타키 회장, 72년 만에 아버지 무공훈장 대신 받아

5월 25일 스타키홀에서, 심 회장 “전쟁 영웅들에게 보청기 지급 사업 계속”



왼쪽부터 심상덕 대표회장, 고 심상택 씨의 차남 상학, 장남 상돈(스타키보청기그룹 회장), 심대평 대표회장, 고인의 삼남 계원(청음복지관 관장), 손자 심성훈 씨(심상돈 회장의 장남)

심상돈 스타키코리아 대표가 5월 25일 서울 스타키홀에서 열린 훈장 전달식에서 6·25전쟁에 참전했던 부친 고 심은택 씨를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6·25전쟁 중 훈장수여자로 결정됐으나 이를 받지 못한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찾아 훈장을 전달하는 정부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2019년에 시작했다.

심상돈 대표는 훈장을 받은 뒤 “비록 늦었지만(아버지의 공로를) 잊지 않고 가족들을 찾아내 영예로운 훈장을 주신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훈장은 우경관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장(육군 준장)이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대평 청송심씨 대종회장(전 충남지사)을 비롯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했다.

심상돈 대표는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추모비벽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카투사연합회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추모비벽 기공식은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장은 7월로 예정하고 있다. 심상돈 대표는 개장 행사에 ‘영예의 특별손님’으로 초청을 받아 놓고 있다. 이 행사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

심상돈 대표는 이밖에도 유엔 회원국 한국전쟁 참전용사 16명에게 1억 원 상당의, 아일랜드 출신 군인 10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스타키보청기를 기부해 왔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26)

하인도 글동무로 삼은 열(悅)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
영의정까지 오른 정치가... 하인에게 자녀교육 맡기고 나중에 면천(免賤)까지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보혜(輔慧)야, 신분 제도가 엄격했던 조선 시대에 어떤 상전(上典)이 집안 하인(下人)을 친구처럼 대하고, 또 그 하인에게 자식들의 교육까지 맡겼다면 그 상전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

니?
우리 청송심가 안효공파(安孝公派) 12세조로서 함자(銜字)가 열(悅, 1569~1646)인 할배가 계셨어. 조선 선조 2년에 태어나셔서 인조 24년에 77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벼슬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와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영의정(領議政)까지 오르셨어.

영의정은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고 해서, 위로는 임금 한 사람만이 있고, 아래로는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자리였어. 그러한 만큼 영의정은 아무나 될 수 없었어. 임금과 신하들은 물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였지.

우리 열 할배가 젊으셨을 때의 일이라고 해.

어느 날 저녁,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하인들이 있는 문간채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더라. 가만히 가 보니 하인 하나가 글을 중얼거리더라. 그래서 그 글을 따라 외다가 불이 꺼지자 열 할배도 당신의 방으

로 돌아오셨어. 그 뒤에도 몇 번이나 그 하인을 따라 글을 외곤 하셨대.

'으음, 저 친구를 나의 글동무로 삼아야겠구나.'

이튿날 열 할배가 그 하인을 불렀어. "어떻게 그 어려운 글을 다 외는가?"

"별 것 아닙니다.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께서 글을 읽으실 때마다 속으로 따라 외곤 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따라 외었구나. 이제부터 우리 글동무 하세."

"아이고, 제가 어찌 감하..."

"그렇지 않네. 사람에게 귀전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두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지 않는가!"

이리하여 열 할배는 하인 글동무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벼슬자리에 나아가셨어. 열 할배는 그 뒤에도 틈날 때마다 이 하인과 어울리며 글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어. 그러자니 이상한 소문이 났다고 해. 열 할배의 하인이 도인(道人)이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하인이 주인집 자녀들 교육까지 맡고 있다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어.

열 할배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 하인에게 어려운 책을 잠시 펴 보이고는 본 것을 외게 하였는데, 소문대로 정확하게 외었어.

"어찌 그 어려운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가?"

"별 것 아닙니다. 책이 없어서 들을 때 정신을 모으다 보니 그리된 것뿐입니다."

하인도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

열 할배가 벼슬길에 나가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되자, 이 하인에게 집안 자녀들을 가르치게도 하였어. 그러자 집안에서는 하인이 양반집 자제를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반대도 있었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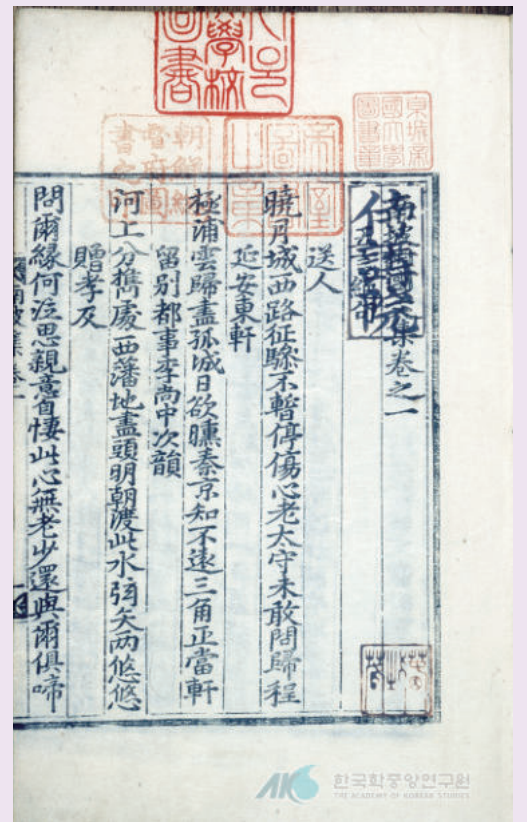
그러자 열 할배는 이 하인의 노비문서를 불태워 버리고 자유롭게 보내주셨다고 해. 나중에 이 하인은 훌륭한 선비가 되었고, 늘 열 할배에게 고마운 마음을 지녔다고 해.

이 이야기는 박양한(朴亮漢, 1677~1746)의 『매옹한록(梅翁閑錄)』에 실려 있는데, 이야기 속의 하인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서기(徐起, 1523~1591)라고 알려져 있어. 과거(科擧)들이 쓴 『동락패송(東洛裨頌)』이라는 책도 '서기는 심열(沈悅)의 덕분으로 하인에서 면천하여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위의 이야기는 '천일야사'라는 TV프로그램으로 방영되기도 했지(2019년 5월 20일).

열 할배의 자는 학이(學而), 호는 남파(南坡)이셔. 아버지는 부사 충겸(忠謙) 할배이며, 어머니는 연일정씨(延日鄭氏)로 첨지중추부사 정숙(鄭榘)의 따님이신데, 숙부인 예겸(禮謙) 할배의 양자로 들어가셨어.



열 할아버지의 문집인 '남파집'



『남파집』 제1권 오언절구(五言絶句) 편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시고, 159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 검열에 기용되었어. 뒤에 성균관전적 등 삼사(三司)의 요직을 역임하신 다음, 경기도·황해도·경상도·함경도의 관찰사를 지내셨어.

1623년 호조판서로 승진하셨으며, 1638년(인조 16) 염철사(鹽鐵使)가 되어 중국 심양(瀋陽)에 가서 물물교환을 하였고, 그 뒤 강화유수·판중추부사·우의정·영의정 등을 역임하셨어.

열 할배는 나라 살림을 잘 하셔서 임금의 총애를 받으셨어. 또 시와 글씨에도 능해서 『남파집(南坡集)』 6권을 남기셨어.

'열(悅)'에는 '기쁘다, 기뻐하며 따르다'는 뜻이 들어 있는데, 열 할배는 본인은 물론이고 주위까지 기쁘게 한 일생을 보내신 것 같지 않나?

열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있는 족보(위에서 두번째 칸)

7세조 심린 할아버지의 명작 환아정, 화려한 부활

1400년대 건립했으나 소실...산청군, 46억 들여 재건해 준공식

경남 산청군은 560여 년 전 청송심씨 7세조 심린(沈瀾) 할아버지가 지었으나 소실된 환아정(換鵞亭) 재건사업을 마무리하고 6월 27일 산청공원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환아정은 46억 원을 들여 청사 뒤편 산청공원 정상부 3500㎡ 터에

모습을 드러냈다(지금까지 모든 기록은 환아정을 1395년에 건립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본보는 아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146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도한다).



6월 27일에 있었던 환아정 준공식(산청군청 제공)

환아정(換鵞亭)은?

환아정은 산음(현 산청) 현감이었던 7세조 병조참의공 심린(沈瀾) 할아버지가 경호강변 절벽 위에 있던 산음현 객사의 후원으로 지은 정자다. 환아정이라는 이름은 권반(權攀)이 지은 것으로 중국 진나라 때의 명필 왕희지가 산음(조선의 산음과 이름이 같음)에 사는 어느 도사에게 도덕경을 써주고 거위(鵞)를 대신 받은(換) 고사에서 따왔다. 현판은 당대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韓石奉)이 썼다. 중국에서는 왕희지가 글을 써주고 거위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오원 장승업도 이 장면을 즐겨 그렸다. 이후 ‘환아’는 ‘애써 청해 글을 얻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환아정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에게 소실됐고, 42대 산음현감 권순(權淳)이 새로 짓고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기문을 썼다. 그러나 1950년 3월 화재로 완전히 불타 버렸다.

환아정은 주변의 경호강과 함께 산수가 아름다워 영남 유림과 선비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영남 3대 누각으로도 꼽혔다. 정자가 소실하기 전에는 50여 명의 선비가 남긴 70여 편의 찬미 시(詩)가 걸려 있었다고 전해진다. 1601년 봄, 당시 현감 김대현(金大賢)이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대해 잔치를 베푼 모습을 화공 오삼도(吳三濤)가 그린 <환아정양노회도(換鵞亭養老會圖)>가 전해진다.

심린 할아버지의 묘는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정문로 233-1에 있다.

‘환아정 중건기’ 심동섭 부회장이 지어

산청군은 환아정을 복원하며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사진)에게 중건기를 의뢰했다. 다음은 심동섭 대종회 부회장이 지은 ‘환아정 중건기’이다. 예전에는 중건기를 한자, 또는 한자와 한글 병용으로 많이 썼으나 요즘은 젊은이를 위해 한글로도 많이 쓴다고 한다



환아정 중건기

옛 선현들은 산수가 수려한 곳에 정자와 누각을 지어 그 지역의 지리형승을 널리 알리고 백성들과 시인묵객들이 올라 시문을 짓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며 세파에 시달린 심신을 달래며 호연지기를 기르기도 하였다.

우리 고을 산청은 동국의 진산 두류산 천왕봉이 우뚝 솟아 동남으로 그 맥이 흘러 북쪽에는 문필봉이 우뚝하니 기라성 같은 학자가 끊이지 않았고, 왕산에는 가락국의 역사가 서려 있다. 남쪽에는 응석봉이 내려를 펼치고 멀리 두류 덕유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북풍한설 막아주고 덕유산에서 발원한 경호의 맑은 물은 굽이굽이 감돌아 백성들의 젖줄로서 풍족하였다. 난정기에 상고하건대 중국 회계 산음의 산림과 유수는 그 아름다움이 더 비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어찌 우리 산음의 풍광이 회계에 뒤지겠는가.

래고의 신비를 간직한 윤림천석의 자연환경이 천혜의 명승을 이룬 이곳에 일찍이 1400년대에, 청송 심린이 현감으로 부임하여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풀더니 백성은 순박하고 정사가 태평하였다. 이에 객사의 후원으로 정자를 창건하고, 권반이 이름을 지으니 환아정이란 중국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초기 격동의 시기에 이런 대역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심린 현감의 부, 조부, 증조부가 삼대에 걸쳐 정

승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환아정은 진주의 촉석루, 밀양의 영남루와 함께 영남의 삼대 누각으로 손꼽혔으며 산청이 선비의 고장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누각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하여 소실되었고, 1640년경 권순에 의해 복원되었으나 1950년 화재로 인해 또다시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중간에 여러 차례 보수와 단청, 그리고 부속건물을



환아정 기문 (사진 산청시대)

건립한 바 있으나 기존의 기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일이 열거치 않는다. 선현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이다.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듯이 그동안 고을의 수령들이 복원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실행치 못하였다. 이에 평소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역사의식이 투철한 李在根 군수가 산청의 상징적인 환아정을 복원키로 결단하고 沈載和 군의회의장과 군의회가 합심하니 그 정성이 천

지를 감동시키고 신명을 움직여 대의를 성사케 한 것이다.

총 1210평의 부지에 정자와 누각의 고유한 멋을 살려 2년여 만인 2022년(壬寅) 오월에 완공하니 그 자태가 웅장하여 옛 모습에 비해 손색이 없다. 오호라! 세상이 조석으로 변해 고도와 고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이러한 대역사를 이룩함은 천운이 도래함인가. 이는 육백여년 전에 선현들이 세운 큰 뜻에 매우 부합하는 일이며, 영구히 보존치 못했던 송구스러움을 이제야 면하게 되었음이다. 환아정이 완공되자 이재근 군수와 심재화 의장이, 필자에게 그 기문을 청하니, 천학비재에 불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감히 사양치 못했다.

역사를 잇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다. 선현들의 숭고한 열이 새겨진 이 정자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 천혜의 자연풍광에 세속의 얽매임을 씻고, 심신을 가다듬어 산청이 선비의 고장이요 실천유학의 산실이며 나라의 위기에는 기꺼이 목숨도 바치는 의로운 백성들이 대를 이어 사는 곳임에 긍지를 느끼며 올곧은 선비정신을 배양하여 환아정과 함께 천추만대에 그 정신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이에 중건기문을 짓는다.

서기 2022년 임인 5월 일
성균관 고문, 원임부관장 청송 심동섭 짓고
신구 윤호석 쓰다

환아정 건립 시기 60년 이상 늦춰 잡아야 할 듯

환아정은 그동안 건립시기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 대부분의 자료가 “1395년 산음현감이었던 심린(沈瀾)이 건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1395년이라면 조선이 건국한 지 불과 3년 후로, 6세조 회(澮) 할아버지(1418~1493)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그래서 7세조 심린 할아버지가 산음현감을 지냈는지조차 의문이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심린(沈瀾·실록 번역은 ‘심인’으로 표기)을 입력하자 모두 22건의 기사가 검색됐다. 세조실록 1건, 성종실록 18건, 연산군일기 1건, 중종실록 2건이다. 이중 가장 첫 번째 기사인 1461년 4월 11일 자(세조실록 24권)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의 산음현감(山陰縣監) 심인(沈瀾)이 소송을 당한 사건(事件)에 대해서”라는 결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후 성종실록에는 심린을 둔녕부도정으로(1470년), 공조참의로(1471년), 병조참의로(1489년), 첨지중추부사로(1490년) 임명한 사실 등이 나온다. 따라서 심린 할아버지가 산음현감을 지낸 것은 분명하나, 환아정 건립시기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60년 이상 늦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보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이 기사를 게재한다. 환아정의 건립시기를 특정하는 일과 관련 기록을 바로잡는 일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편집자)

선조의 숨결을 찾아서 - 선산의 봉고정사와 대구의 모산서옥

교육과 유림의 산실 봉고정사, 자료의 보고 모산서옥

모산 심재완 선생의 숨결이 서린곳...귀중자료 2263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봉고정사, 후학 양성과 유림의 중심

봉고정사(鳳臯精舍)는 청송심씨 광주부윤공(14세, 휘 총)의 후손인 심기택(22세, 1837~1907)과 그 후손이 대대로 관리해오고 있는 학문의 도량이다. 경북 선산을 봉곡마을에 있다. 봉고정사는 오랫동안 후학을 양성하는 서당으로, 때로는 선산지역 유림의 학문 교류와 회합의 장소로 쓰여온 유서 깊은 공간이다. 건물이 남아지자 후손인 심재완 (25세)이 1989년 재실 형태로 중수했다. 심재완 본인도 모산(慕山)이라는 호로 유명한 학자였다.



생전의 모산 선생

봉고정사는 뒤로는 비봉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벌판이 있다. 비봉산은 이름대로 봉황이 날아오르는 형상이다. 그래서인가 예로부터 선산에서는 인재가 많이 나왔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조선 인재의 절반은 영남에서 나고, 영남 인재의 절반은 선산에서 난다”고 했다. 그런 선산에서 봉고정사는 인재 양성과 유림사회의 구심점으로 청송 심문의 명성을 알려온 셈이다.

모산 심재완, 고시조와 서예의 대가

모산 심재완(1918~2011)은 종혜공(9세, 휘 연원)의 16대손이다. 젊은 시절부터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

특히 우리 고전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고시조 부문에 천착했다. 《교본 역대시조전서》(1972)와 《정본 시조대전》(1984)은 독보적인 대작이다. 1973년 학술원상을 받았다. 모산은 또 증조부 심기

택, 조부 심상옥, 부친 심장환의 유고를 수습해 《鳳臯世稿》를 간행했다.

1989년 모산의 제자와 지인, 친인척이 모산의 연구와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모산학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대구시 수성구에 있다.

‘모산서옥’은 모산학술재단 건물 내에 있는 자료 보관공간이다. 이곳에는 모산이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과 서적, 서예작품 등을 비롯해, 모산이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수집한 귀중한 국학 자료와 문헌, 서화 등을 소장하고 있다.

모산은 명필이었던 부친(14세, 퇴산 심장환)의 재능을 이어받아 서예에도 뛰어났다. 어린 시절 한학과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부친에게 안진경과 하소기를 배웠다. 모산은 12세에 천자문을 썼고, 18세에 대한민국 국새1호를 제작하고 서예가로 유명한 성재 김태석 선생에게 사사했다. 교직에 종사하면서도 모산은 늘 옆에 책과 붓, 먹, 베틀을 두고 지냈다. 그는 예서에서 초서, 전서까지 다섯 가지 서체에 두루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모산의 서예 실력은 널리 알려져 글씨를 써 달라는 청을 많이 받았다. ‘선산읍성남문’과 ‘낙남루’ 편액, 도산서원 입구의 농암가비(農巖歌碑), 박인로 詩碑 등이 그의 작품이다.



선산의 봉고정사를 방문해서(7월 13일). 앞줄 왼쪽부터 심원필 교수, 심익섭 달력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심우정 전 대구총회장, 심기석 일가, 심창래 종보 편집위원, 뒷줄 왼쪽부터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준섭 경운대 교수. (사진=박윤희 선생님, 심문 머느리)

귀중한 소장 자료,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봉고정사와 모산서옥은 국학진흥을 위해 2020년 12월과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2263점의 귀중한 자료를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했다. 청송심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기탁받은 자료를 번역하고 정리해서 2021년 12월 <鳳臯精舍 慕山書屋>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학계에서는 이 책이 관련 인문학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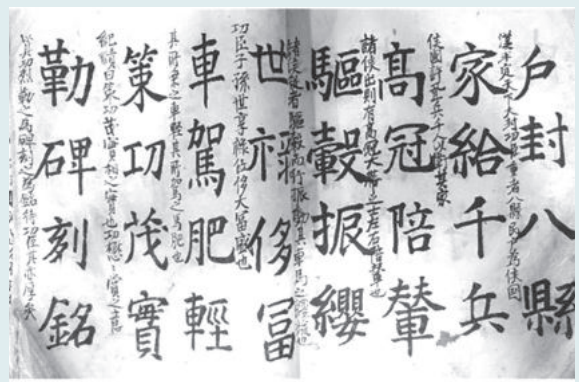
<취재=심창래 종보 편집위원>



대구 모산서옥을 방문해서(7월 13일). 왼쪽부터 이상렬 모산학술재단 사무국장, 심원필 재단이사(모산 심재완 선생의 아들), 전상희 재단이사, 홍우홍 재단 이사장, 심후섭 대구문인협회장,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익섭 달력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심상철 대종회 고문, 심창래 종보편집위원, 박규홍 재단 감사, 심훈 대구총회 회장.



모산 선생이 쓴 '선산읍성남문'



모산 선생이 12살에 쓴 천자문

일가기업탐방 - 경북 청도의 전통옷칠공예관과 광명산업

옷칠공예와 특수차 적재함, 전통과 첨단기술의 2개 기업

심창섭 대표, 2개 기업 모두 궤도에 올려...대구지역 종회 활동도 열심

대구에서 팔조령을 넘어 청도읍쪽으로 가다 보면 최근 카페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유등연지(柳等蓮池)가 나온다. 이 연못 부근 국도변에 자리 잡은 '대한민국전통명장의 집'이 바로 심창섭 전통옷칠명

장이 운영하는 '청도옷칠공예관'이다. "내가 하는 일은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심창섭 명장(64)을 만나 봤다.

천연염색으로 시작해 칠기의 오묘함에 빠져

원래 시작은 천연염색이었다. 2014년 아내 이정희 씨(56)와 일본까지 가서 모리(森) 박사에게 천연염색을 배웠다. 쪽빛 염색 같은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창섭 일가는 이미 특장차 적재함을 만드는 광명산업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광명산업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아예 천연염색 작업장과 전시관을 지었다.

연구에 2년 정도가 걸렸다. 왕겨나 톱밥을 강력한 흡인력으로 빨아들여 자동으로 적재하고 쉽게 하역하면서도 먼지가 나지 않는 장치를 개발했다. 같은 원리를 응용해 곡물적재와 하역장치를 만들어 1998년 특허도 받고,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까지 획득했다. 전자동인 이 장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이고, 환경에도 좋은 획기적인 제품이었다.

사업이 번창하자 2005년 전북 고창에도 공장을 지었다. 경운기 퇴비살포기와 톱밥운송차량, 낙엽운송차량 등도 실용신안을 취득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세월호 사건 이후 특장차의 구조변경이 어려워져 경영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분야에서는 선두기업이다.



대구종회 부회장과 대구 강원도민회장 봉사

1987년 고향인 흥천에서 대구로 이주하면서 청송심씨 대구종회에 참여했다. 요즘은 대구종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창섭 일가는 "비록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지만 핏줄끼리의 공생과 상생의 식으로 종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문중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인 강원도 사랑도 대단하다. 2013년부터 10년째 재대구강원도민회장을 맡고 있다. 회원이 1천여 명이나 된다. 프로축구팀 강원FC가 대구에서 경기를 할 때면, 강원도에서 원정응원 온 강원도민과 대구 회원들과 함께 응원하는 것을 즐긴다. 2018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첫 번째 성화 봉송주자가 창섭 일가였다. 옷칠공예관에는 강원도지사의 표창패와 감사패, 흥천군이 준 대상(2019년 애향부문) 등이 진열되어 있다.

〈취재=대구 심준섭 종보 편집위원〉

천연염색에 약간 실증을 느낄 무렵, 또 하나의 전기(轉機)가 찾아왔다. 지인의 소개로 통도사의 옷칠강좌와 만난 것이다. 지금은 조계종 종정 예하이신 성파 스님에게 옷칠과 나전칠기 등을 배웠다. 배우면 배우수록 오묘한 재미에 빠져들었다. 2017년 5월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칠공분야 문화재수리기능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2019년 12월에는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와 (사)대한민국전통명장협회가 주는 전통옷칠명장으로 선정됐다.



심창섭 전통옷칠명장과 부인 이정희 공예작가

그는 작업장에 '청도옷칠공예관'이란 간판을 걸었다. 명함도 공예관 대표 것을 쓴다. 지금은 대구에 있는 집은 비워두고 공예관에 살면서 부부가 함께 공예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6명이 이곳에서 옷칠을 배우고 있다. 공예관은 나전칠기류와 다기, 반상, 장식장을 비롯해 쪽물과 옷칠을 곁들인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공의 시원(空의始原)'이라는 작품도 출품했다. 그는 "옷칠은 매우 유용한데도 인지도가 낮다. 청도옷칠공예관을 통해 옷칠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싶다"고 했다.



경북 청도옷칠공예관에서. 왼쪽부터 심상배 대구종회 총무, 심상익 대종회 문화이사, 심상철 전 경북대 공대학장, 심창섭 명장의 아내 이정희 씨, 심창섭 전통옷칠명장, 심훈 대구종회 회장, 심원필 모산문화재단 이사, 심춘환 창주건설 대표

특장차 적재함의 선구자로 강소기업 일귀

창섭 일가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회사인 광명산업도 평범한 회사가 아니다. 특장차의 적재함을 만드는 회사다. 주로 대형 도정공장의 왕겨와 제재소의 톱밥을 비롯해 낙엽이나 곡물 같은 것을 기계로 싣고 운반하는 특수차량 적재함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특수적재함 제작 특허를 받았다.

창섭 일가는 강원도 흥천이 고향이다. 울산의 현대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도정공장에서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왕겨를 트럭에 싣는 것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 대량의 왕겨를 쉬우면서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까. 그는 자동 기계를 떠올렸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다. 1994년 넉넉하지 않은 사업자금으로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의 허름한 축사 한 곳에 광명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대중회와 지파총회 활동

청송심씨 원로공직자 모임, 주목회 (5월 30일)



앞줄 왼쪽부터 심훈중 변호사, 심갑섭 전 KBS광주총국장(주목회 회장), 심우영 전 총무처장관·경북도지사, 뒷줄 왼쪽부터 심상호 전 경찰서장, 심대식 전 국토건설부 간부, 심춘보 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 심상대 전 KBS 순천방송국장, 심상익 대중회 대외협력실장, 심익섭 전 제일은행 뉴욕지점장, 심상정 전 국토건설부 국장, 심우섭 전 국가정보원 고위공무원(주목회 총무), 심재길 전 전화국장

광주·전남 청장년회 정기모임 (6월 8일)



왼쪽부터 심한섭, 심미숙, 심상석, 심민섭 장성군의원, 심성식, 심규중, 심도섭, 심동섭, 뒷줄 왼쪽부터 심돈식, 심평식, 심광섭, 심성식, 심강식, 심홍섭 작가, 심주형, 고영임 광주북구의원(남편 심성식), 심영대, 심필용, 셋째줄 왼쪽부터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심갑희, 심덕재 일가.

우리중회 5세조 안효공(휘 溫) 묘소 참배 (6월 11일)



앞줄 왼쪽부터 심우근 이사, 심재금 여성수석부회장, 김영례(심익섭의 아내),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경진 사무총장, 심국향 제주지부장, 뒷줄 왼쪽부터 심성식 광주지부장, 심정환 이사, 심재성 이사, 심재섭 회장, 심익섭 수석부회장, 심광섭 이사, 심상목 고문, 심재만 이사 (사진=심문수 이사)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청송 일가 (6월 15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구중회(회장 심훈) 정기총회 (6월 17일)



제2회 한마음대회 아이디어 수렴회의 (연예인편, 6월 15일)



왼쪽부터(앞뒤 관계없이) 심춘섭 이경공중회 총무,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심상익 대외협력실장, 심재갑 곡산공중회 회장, 심형래 코미디언, 심현섭 개그맨, 심경택 청수회 서울위원, 심창래 전 YTN국장

안동중회(회장 심재덕) 정기총회 (6월 18일, 안동선비문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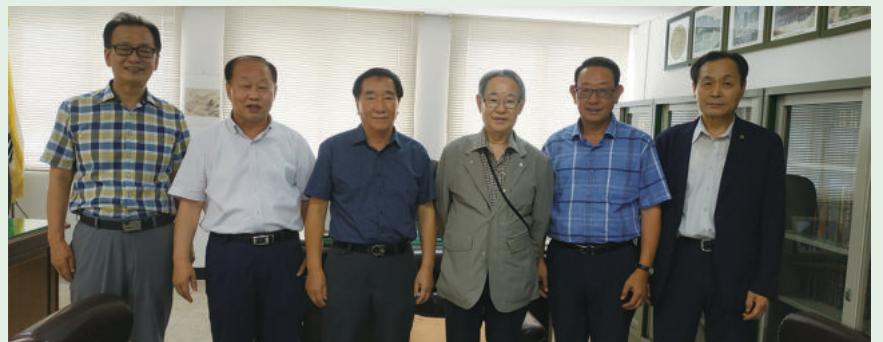


남양종합목재 심은택 회장에게 종보 제154호(2022년 3월 31일) 액자 전달(6월 30일)



왼쪽부터 심상일 여수참조은신협지점장 심종식 이사(광주), 심은택 남양종합목재 회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준섭 종보 편집위원, 심종래 종보 편집위원, 심갑섭 이사(광주) (사진=심준섭 여수사진작가)

신천공중회 신입집행부 대중회 예방 (7월 6일)



왼쪽부터 심규정 재무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학섭 신천공중회 부회장, 심상경 신천공중회 회장, 심용섭 신천공중회 총무, 심언태 총무이사

심상균 에스피 시스템스 회장 예방 (7월 7일)



경남 양산시의 에스피시스템스 본사 방문. 왼쪽부터 심은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 심상균 부산경총회장(에스피 시스템스 회장),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호준 에스피 시스템스 대표이사, 심상익 문화이사, 심규섭 오산사북서정공중회 총무

2023년 달력디자인위원회 첫 회의 (6월 8일)

위원장 심익섭 교수, 간사 심창래 전 YTN 국장 선출



왼쪽부터 심수지 잡지사 대표, 심인구 도예명인, 심재금 전 김포하강신협본점 이사장, 심창래 전 YTN 국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규순 명지대 교수,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 심춘섭 이경공중회 총무, 심은석 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2023년 달력디자인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심창래 전 YTN국장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와 2022년도 달력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일가들의 여론을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수용해 내용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더 좋은 달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중화와 심문 사람들

3년 만의 대면 정기총회... 전국서 208명 참가 성황

대중회는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컨벤션센터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면 정기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이다. 전국에서 208여명의 일가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는 2021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문장(門長) 제도 도입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심정구 전 부회장을 제1대 문장으로 추대했다.



대중회 발전 유공자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왼쪽부터 심홍보(창원), 심광섭(청송), 심규섭(오산) 심대평 회장, 심길택(청송), 심진식(함안), 심정환(시흥)



총회에 참석한 일가들이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심덕부 도원수(총사령관) 활약 정정... 새 진포대첩기념비 답사(6월 17일)



앞줄 왼쪽부터 심종완 군산시 계장, 심재웅 이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심재득 13상신승조 사업 위원장, 심수영 전북중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심상용 전 임피중회 회장, 심재성 이사(익산), 심문태 군산시 과장, 심재열 전북중회 총무, 심재관 임피중회 총무, 심해구(서울), 심상엽 이사(군산),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방섭 임피중회 부회장, 심보균 UN거버넌스센터 원장, 심규정 재무이사.

심준섭 여수 사진작가 전시회(6.24~7.31)



심준섭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 달빛갤러리 앞에서(전남 여수시 고소5길 32). 왼쪽에서 두 번째가 심준섭 작가.

2022년 중반기 인사

- 〈대법원〉(7월 1일자)
 - ◇법원서기관(승진) ▲수원지방법원 심준철
- 〈농촌진흥청〉(6월 1일자)
 -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심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6월 23일자)
 - ◇부서장 전보 ▲경북동부지부장 심민수
- 〈경남 진주시〉(7월 1일자)
 - ◇5급 승진 ▲능력개발관장 심숙현
- 〈부산시설관리공단〉(7월 1일자)
 - ◇3급 전보 ▲기술혁신팀장 심기민
- 〈파이낸셜뉴스〉(7월 1일자)
 - ◇편집국 뉴스총괄 ▲정치부장 심형준
- 〈부산시〉(7월 6일자)
 - ◇3급 전보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 〈대구시 수성구〉(7월 12일자)
 - ◇6급 이하 전보 ▲교육지원과 심재팔
- 〈전북 익산시〉(7월 11일자)
 - ◇6급이하 전보 ▲회계과 심보양
 - ▲용안면 심재현
- 〈전남 나주시〉(7월 11일자)
 - ◇5급 전보 ▲산림공원과장 심영조

- 〈충북 청주시〉(7월 11일자)
 - ◇5급 전보 ▲평생학습관장 심재선
- 〈충북 제천시〉(7월 11일자)
 - ◇5급 전보 ▲정보통신과장 심상현
 -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백운면장 심상일
- 〈가천대 길병원〉(7월 11일자)
 - ◇진료부 ▲연구지원부장 심재양
- 〈대전 유성구〉(7월 13일자)
 - ◇6급 이하 전보 ▲마을자치과 심유리
- 〈기술보증기금〉(7월 13일자)
 - ◇지점장 1급 승진 ▲수원 심영한
- 〈국세청〉(7월 14일자)
 -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전보
 -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 〈경북 안동시〉(7월 14일자)
 -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전보
 - ▲평생교육과장 직무대리 심미조
- 〈경기도 오산시〉(7월 14일자)
 - ◇지방사무관 ▲초평동장 심연섭
- 〈충북 단양군〉(7월 15일자)
 -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심우정 인천지검장(6월 22일)



심상훈 서울민음치과 개원(까치산역·6월30일)

삼척심씨에 대한 종보의 입장

종보 154호(3월 31일자)와 155호(5월 31일자)에 게재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선자 명단과 관련해, 일부 일가가 삼척심씨를 우리 종보에 실어서는 안 되며,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종보 제작자 일동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종보는 앞으로 삼척심씨를 청송심씨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기사도 게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개인의 이해관계나 불순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청송심씨의 외연을 넓혀보자는 단순한 선의에서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청송심씨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시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청송심씨종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 심문(沈門)의 소식정보지입니다. 대종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종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각 찬조 2022.5.22.~2022.7.16 (50만원이상)

■ 각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심중택
공숙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심상국
봉익대부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3월



임성호
청심장학회 이사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심대평
대종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4월



심익섭
오산사북시정공종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4월



심행진
강서공파지평공종회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4월



심재진
청송악은공 이사
약은공춘향헌성금 70만원
2022년4월



심석산
정어공어비리종회 회장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5월



심규화
울산내금위공종회 회장
종보찬조 150만원
2022년6월



심재갑
곡산공파중종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6월



심재봉
인방산업 회장
종보찬조 300만원
2022년6월



심상균
부산경총 회장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7월



심재규
대종회 부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7월



심장식
함흥공파중회 회장
장학찬조 300만원
2022년7월

<1500, 1600년대 청송심씨족보>를 찾습니다.

청송심씨족보는 1545년(명종 1) 좌의정 만취당상공(휘 通源通원)이 순천 부사때 간행한 을사보(乙巳譜)를 초간본으로 하여 1562년(명종 17)에는 전주부윤공(휘 鎰鎰)을 중심으로 임술보(壬戌譜)를 편찬하였고, 1578년(선조 11)에는 심의겸을 중심으로 무인보(戊寅譜)를 편찬한 바 있다. 1649년(인조 27) 영천군수(榮川郡守) 심장세(沈長世)가 그의 수정 초보를 바탕으로 영주에서 간행한 것이 기축보(己丑輔)이다.

현재 을사보, 임술보, 무인보, 기축보는 실전된 상태이며, 기축보는 청송심씨족보의 4간본으로 1713년(숙종 39) 심단(沈檀)·심득량(沈得良) 등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계사보(癸巳譜: 4卷) 편찬의 중요한 저본(底本)으로 의의가 크다.

위 을사보, 임술보, 무인보, 기축보를 소장하고 계시는 일가분께서는 대종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족보를 발견하게 되면 향후 청송심씨 역사관에 잘 보존하겠으며, 소정의 사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종보찬조

- 300만원 심재봉(인방산업 회장)
150만원 울산내금위종회(회장 심규화)
200만원 이세기
100만원 심상균(부산 경총회장)
50만원 정어공어비리종회(회장 심석산)
30만원 진주이반성중종(회장 심철보) 심장섭(여수)
20만원 대구중회 심기석(인제) 심상천 영신푸드
10만원 심재관 심운택 심재순 심연춘(수원) 심현석(대구) 심재홍(수원)
심갈수 심형식 심광부 심동엽 심전택 심상범(원주) 심숙자
심재준 심종식(광주)
6만원 심강재(전남)
5만원 심우영 심명기 심재영 심광철 심우관 심백규(서울) 심윤도(서울)
심재윤 심영무 심재선 심재의(서울) 심재섭(평택) 심보근
심재화(진주) 심화진 심정택 심재갑(대전) 심중우(부산)
심종원(법무사) 심명희(청송) 심남섭 심수진 심경섭 심대규
심상정 심장섭(청송)심장우
3만원 심기연 심재수 심은섭 심종복(서울) 심백규 심옥희 심재중
심재찬 심용보 심영섭 심관식(서울)
2만원 심만섭(광주) 심현성(청송) 심원섭 심명섭 심규형(경기)
심기영(수원) 심우철 심영희(일산) 심기택 심정식 심재덕(광주)
1만원 심재상(진주) 심봉섭 심상근 심행근 심재환 심희국 심응석
심삼용 심원섭 심경석 심갑섭 심종욱 심길용 심정현 심인기
심상찬 심상미 심정식 심인숙 심성길 심규철 심민섭(김포)
심문섭(서울) 심재국 심원중 심정섭 심두석 이일순
심영순(진사공) 심선숙(진사공) 심희춘(진사공) 심재홍 심옥란(삼덕)
심재전 심재민 심재원 심종식 심재홍 심인섭 심광섭 심재식
심문석 심상숙 심철우 심부근 심승보(원주) 심재욱(서울) 심재석
심승식 심재섭 심인섭 심우진 심석진 심재광(일산) 심규선(울산)
심상혁 심병성 심의봉 심재학 심민섭 심윤근 심형섭 심재오
심범섭 심상욱(하동) 심원섭(인천) 심우준
대덕산업 심호섭 심우정 심소은 심우석 심현규 심재순
심규철(군산) 심성보(분당) 심재권 심규태 심상백 심형섭
심수택(분당) 심용섭(남양주) 심인보(제천) 심일섭 심천보(남양)
심성보 심성호(강릉) 심재영 심광보 심태섭(속초) 심재호 심재광
심상길 심형섭 심규순 심후택 권양희 심재덕 심예섭 심상섭(무안)
심만섭 심명구 심창석 심중홍 심광원 심상호(청주) 심재혁
심상천 심민성(안동) 심하섭(원주) 심종일(강릉) 심옥택 심송하
심동섭 심준섭 심효길 심행보 심재환 심우만 심광섭 심우문
심향보 심의준(원주) 심재복 심재록 심영선 심연희 심상근
심재경 심월근(월문) 심철택(나성) 심금자 심봉섭 심두보
심용준(이천) 심경수(이천) 심재동 심지호 심태섭 심재선 심재학
심재선 심재원 심기성 심기영 심재남 심규섭 심만식(인천) 심승호
심창섭(창원) 심종석(인천) 심원욱 심지현(예산) 심소현(예산)
심봉진 심익수 심 길 심재구 심재중 지로(경산) 심규중
심규승(예천) 심건용 심재근 심갑삼 심상태 심경섭 심상집(김포)
심재인 심규복 심재민(양주) 심상면 심재윤 심원선(담양) 심전섭
심현근 심보임 심봉현 심용보 심용섭 심재유 심희준 심명섭
심재정 심재선(안양) 심창후 심근구 심창식(서울) 심상문 심의형
심호진 심동보 심영섭(전주) 심재근 심재홍 심광보 심용식
심상욱 심상근 심윤구 심윤도 심희보 심재문 심찬호 심묘택
심문자 심재근 심동열 심영근 심경용 심은섭 심종식 심도문
심용보(강화) 심덕섭 심재형 심규식(함양) 심재문 심광섭 심준섭
심종진 심중보 심영수 심복수 심경모 심재필 심방식(순천)
심규태(인천) 심재두 심창섭 심용섭 심보성 심재돈 심현식
심상희 심재훈 심성래 심기관 심홍섭 심보성(마산) 김홍희
심자섭 심규환 심상규 심용택(완주) 심원식 심상민 심용보(부산)
심상우 심영섭 익명(홍제동) 심창섭 심우찬 심규훈(울산)
형제고무(대구) 심재일 심광태(충주) 심의보 심상규 심한석
심석보 심정규 심상돌(창원) 심상찬 심의섭 심광보 심홍섭 심재후
심덕보 심창훈 심재일 심재수 심석방 심우길 심재화 심재숙
심석윤 심창규 심창기 심상필 심재웅(서울) 심범기 심재금 심재학
심효섭 심재진(당진) 심광섭
3,908,480 지로종보찬조

임원회비

■ 부회장회비('22년분) : 30만원
심석산(부회장) 심규화(부회장) 심대섭(부회장) 심장식(부회장)

■ 이사회비('21년분) : 5만원
심홍식(충남) 심대식(인천) 심재갑(서울) 심영보(서울) 심하섭(강원)
심재희(진주) 심형찬(김포) 심상홍(경기) 심호웅(대구) 심재웅(서울)

■ 이사회비('22년분) : 5만원
심대식(인천) 심석문(인천) 심석용(경기) 심석희(경기) 심태욱(영이공) 심용규(수원)
심영구(울산) 심명보(울산) 심연보(울산) 심홍섭(청송) 심재갑(서울) 심우관(경기)
심윤섭(광주) 심영보(서울) 심재훈(김포) 심상홍(경기) 심호웅(대구) 심봉섭(대전)
심홍섭(서울)

장학찬조

- 300만원 심장식(함흥공파중회 회장)
200만원 곡산공파중종(회장 심재갑)
100만원 청광회원 일동(광주) 심재구(부회장, 광주)
10만원 심극택(서울)
6만원 심재희
2만원 심준호(청송)

추향 헌성금 내역 누락분

2세조 함열 추향헌성금 30만원 창원사북시정공종회
10만원 경남중회